

# 출제보도 및 학습자료

2026학년도 SMAKO 모의고사 8회

- 월 가 -

## □ 국어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텍스트에 담긴 심도 있는 정보들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을 정보의 이해와 재구성, 추론과 비판 및 적용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때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는 통합적 출제를 지향했다. 또한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 내용 및 표현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텍스트, 수준 높은 교양과 통찰이 담긴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 정보의 위계와 조직 방식을 고려하여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재조직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2. 출제 범위

국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엄선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구성한 후, 이 제시문에 담긴 고차적·입체적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 그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그 추론을 새

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비판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이번 시험의 출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여러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담론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하되, 제시문의 정보 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할 만한 독해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한다.
-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한다.

### 3. 제시문 및 문항

출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도 높은 제시문으로 독해력을 측정해야 한다. 논의의 완결성은 물론 표현의 가독성을 함께 갖춘 텍스트를 제시하되, 주어진 수험 시간 내에 처리할 만한 정보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기본 조건들을 고려하면서도 학문적·교양적 가치가 담긴 주제나 논의를 담은 제시문들을 개발하였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여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험의 내용 영역은 ‘인문’, ‘예술’, ‘규범’, ‘과학기술’의 4개 영역이며, 문항은 각 세트당 3문항, 총 5세트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 관련 주제로 인식론에서의 베이지주의를 토대로 까마귀 역설에 대한 논변을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제시문은 2026 LEET 언어이해 프랑크퍼트 지문의 형식을 빌려왔으며, EBS 니코드 조건을 학습한 친구들을 고려하여 3번 문항과 같이 수식을 통해 낯섬을 주었다. 해당 문항은 겉보기 난이도만 높을 뿐 실질적으로 선지가 깔끔하게 털리는 구성을 갖고있다. <보기>에서 ㉠은 ㉡로 재진술된다. 이는 곧 ㉠ ↔ ㉡를 의미한다. 어떤 것이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⑤은 제시문의 내용을 빌려올 필요도 없이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설치미술에 대한 이해를 다룬 제시문이 주어졌다.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생각한다. 출제자는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택지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컨대 재현의 수준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높아질 수 있다. 기존 회화는 낮은 수준의 재현에 머물렀으나 그 수준이 높아지자 회화적 리얼리티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재현적 논리'는 '회화적 리얼리티'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13번의 ④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 된다. 개념 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13번의 ③도 마찬가지이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물질주의가 퍼졌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있어 존재 상실의 문제가 발생했다. cause-of 관계이다. 따라서 물질주의와 인간존재 상실 사이는 인과 관계가 놓인 것이지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기출 중 아도르노 제시문에서 볼 수 있는 출제집단의 논리 중 하나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담론에서 쿠키키의 다발이론을 소개하는 제시문과, 윤리 관련 주제로 의료과실로 인한 태아에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 여부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전자에서는 포함관계를 출제

측면에서 메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수 의견’ 즉 ㉠은 법적 인격을 곧 권리의 주체로 본다. 다시 말해 양자 간 필요충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연을 따져본다면 존재자에 대하여 법적 인격을 보유한 집합과 법적 권리를 보유한 집합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은 [A]에 동의하지 않는다. 후자에서는 쟁점을 정확히 잡아내고 논증 관계를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예를 들어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도메인이 다르다. 하나는 상해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망에 대한 것이다. 이때 주체는 크게 두 부류로, 임산부와 태아이다. 사례 ㉡에서 치사죄에 대해 판단할 때 그 대상은 산모가 아니라 태아이다. 따라서 8번의 ㉠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생물 관련 주제로 RNA 스플라이싱, 그 중에서도 다양한 전사체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정보량이 많아 꽤나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요 범주들을 잊지 않고 출제 논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12번의 ㉣는 본질적으로 동시성/순차성 논리를 함축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후보 선택하기 전략’은 두 후보 엑손 중 하나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다른 하나를 최종 전사체에 포함시킨다. 두 경로는 동시에 일어난다. 바로 이게 ‘엑손 건너뛰기 전략’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12번 <보기>의 ㉡와 ㉢에서 엑손 건너뛰기 전략이 두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4. 난이도 및 총평

Smako 8회 국어 영역 시험에서는 개념의 기본적인 관계와 범주를 본질로 하되, 수험생이 난해함을 느낄 수 있게 문항을 설계하였다. 일부 세트는 형식적

으로 2026 LEET 언어이해를 모방하였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7회랑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5. 출제 시 유의점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사설 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 특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태도를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힘든 문항을 설계한다.
-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유무 자체가 문제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항을 설계한다. 다만 인문·철학 분야는 그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 지나치게 어려운 제시문과 문항 설계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항과 답지를 설계한다.